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 닭고기를 수출산업으로!

한국의 육계산업은 수입닭고기에 밀려 상당 부분 잠식되고 있다.

작금의 상황대로라면 수입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육기반부터 시작하여 한국 육계산업은 수입에 빼앗긴 시장만큼 위축되어 가게될 것이고, 관련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쳐 육계산업 자체의 위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계육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겠다. WTO 체제하의 국제경쟁사회에서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수입으로 작아지는 우리의 시장을 수출로서 오히려 더 키워보는 것이 어떨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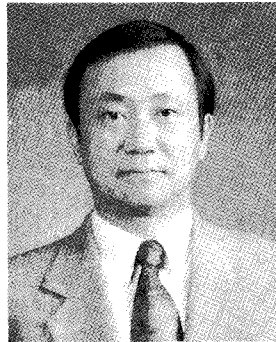
우리의 시장을 이웃나라 일본에서 찾아보자. 우리가 들어갈 시장은 있는지 또 일본에 수출하는 채산성은 있는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참조)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다리정육을 냉장·신선육으로 수출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수출전략산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계육 연간 총생산량(지육 약 27만톤 추정. 註) 참

\* 일본 자국산의 80% 단가적용시 국내수출업체 마진(추정)  
 품목 : 다리 정육(Bone Loss, Skin Loss)

구분	Kg당 금액(원)	산 출 기 준
일본도매단가	5,305	1998년 동경도매단가 614¥(기중평균)의 80% (환율 100¥=1,080원 기준)
CIF 단가	4,022	5,305원/Kg ÷ 1.319(관세 및 경비 31.9%)
FOB 단가	3,921	해상운임 및 보험료 101원/Kg
수출업체	3,857	한국 내륙운송비 및 부두사용료 등 64원/Kg
EX Work단가		
제품생산원가	3,314	다리정육 평균생산원가 추정치
수출업체 마진	543	마진을 : 16.4%(543÷3,314×100)



김 인 식

(주)체리부로식품 대표  
 본회 부회장

조)의 6배가 넘는 시장(연간 약 1백70만톤)인 일본의 계육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시장의 5%를 점유할 수만 있더라도 8만톤이 되어 우리의 육계산업 전체가 30%의 성장을 하는 결과가 된다.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공격적인 수출전략으로 맞서 나간다는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오늘날 양돈산업은 전략적인 수출산업이 되어 있다. 매년 수출량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8만3천톤에 3억1천만달러를 수출하였고 금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돈육의 수입 또한 증가되어 고급고기 수출, 가공 및 단체급식용 수입으로 패턴이 정착되고 있다. 즉 수입에 의한 시장의 잠식과 함께 고급 돈육의 수출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발전 궤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992년까지만 해도 수출로 양돈산업의 발전방향을 잡아 보자는 제안에는 많은 거부와 반대가 있었다. 돼지사육농가, 양돈업계, 관련단체들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육계산업은 어떠한가. 7년전의 양돈산업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5년후의 육계산업을 그려보면서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수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많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고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국제적인 상황은 항상 변하고 있다. 현재는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가능성은 더욱 밝아졌다. 지금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닭고기도 3년후에 2만5천톤에 1억달러, 5년후에는 5만톤에 2억달러, 7년후에는 7만톤에 3억달러를 수출하는 수출산업으로 꽃피워 보자.

註) 농림부발표 계육연간생산량(정육기준 27만톤)

삼계, 종계노계 및 산란노계정육을 포함한 생산량으로서, 순수한 정육 생산량은 정육기준 약 27만톤 수준으로 추정.